

2/25/24

설교 제목: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골로새서 4 장 7-18 절

- (골 4:7)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니 그는 사랑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 (골 4:8)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 (골 4:9)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
- (골 4:10)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 (골 4:11)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 (골 4:12)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 (골 4:13)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 (골 4:14)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 (골 4:15)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늬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절관주** 롬 16:3-16
- (골 4:16)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 (골 4:17) 아킵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 (골 4:18)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며 끝인사와 함께 자신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교리를 정립하고 복음을 전세계로 전파하는데 막대한 공헌을 한 위대한 성경 학자이자 사역자라는 사실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해낸 것은 아닙니다.

그의 곁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그를 도와 헌신한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모두 열 명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기고를 언급합니다.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던 인물로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각 교회에 전달한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가르켜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골 4:7)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니 그는 사랑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골 4:8)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통해 편지를 보내면서 그를 보내는 이유를 밝힙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자신의 투옥으로 말미암아 상심에 빠져 있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간 것을 두고 골로새 교인들 사이에는 엇갈린 반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상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바로 알려 주고 자신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럼에도 자신이 묵묵히 복음 전파의 길을 가는 이유 등과 관련한 교리를 가르쳐 주고

그들이 성도로서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삶을 제시해 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려 한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네시모를 언급합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그 집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도망쳐 나왔다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인 된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 교회로 보내며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골 4:9)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한 것은 오네시모의 뒷 배경에 관해 잘 알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이 편견없이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엿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죄를 지어 세상에서 비난받고 버려진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고 보듬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누구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복음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됩니다.

다음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를 언급합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셋은 모두 할레파 유대인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이방인들을 위해 사역해 온 사도 바울에게 이들의 동역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골 4:10)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골 4:11)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이 2 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마가도니아 지역 데살로나가에서 만나 제자가 되어 사도 바울과 동행한 인물입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났을 때 바울과 함께 투옥되었으며

(행 19:23) 그 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행 19:24)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별이를 하게 하더니

(행 19:25)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행 19:26)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행 19:27)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 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행 19:28)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행 19:29)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사도 바울이 3 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그곳에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장사를 하던 사람들은 큰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고 급기야 소동을 일으켰는데 그때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있다가 투옥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였고

(행 20:4)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뢰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갈 때도 누가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행 27:1)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야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울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행 27:2)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도 바울과 함께 투옥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가는 마가 복음을 기록한 바나바의 생질 요한 마가를 가리킵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에게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1 차 전도 여행 당시 바나바의 소개로 동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도중 뜬금없이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행 13:13)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마도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그가 전도 여행을 소화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의 집안은 부유했습니다.

그가 소유했던 큰 저택은 종종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임 장소가 되었었습니다.

그의 저택 마가의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이 아니고 오순절 때 120 문도들이 모여  
기도했을 만큼 규모가 컸습니다.

하여튼 이 일로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결별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들은 2 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며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충돌했는데  
바나바는 2 차 전도 여행에 마가를 합류시키기를 원했고 사도 바울은 이를 반대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각각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행 15:36)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행 15:37)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행 15:38)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행 15:39)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행 15:40)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행 15:41)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렇지만 이후 마가는 베드로의 가르침을 통해 신실한 주의 종이 되었고 마가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를 하며 삽니다.

그렇지라도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유스도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에바브라를 언급합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설립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은 사도 바울이 자신과 디모데에게 사용한 것으로 에바브라를 자신들과 같이 복음 사역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골 4:12)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골 4:13)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3 차 전도 여행 때 두란노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등에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그곳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있게 서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수고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에 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세 교회들에 퍼져나가는 것에 대항하여 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와 데마를 언급합니다.

(골 4:14)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는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 의사로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2 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드로아와 빌립보에 있었고 3 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합류하여 예루살렘까지 동행했으며 특별히 사도 바울의 투옥 기간 동안 주치의 역할을 했습니다.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후에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버린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때까지만 해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으나 바울이 재차 옥에 갇히자 그의 곁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딤후 4:10)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사도 바울은 끝으로 인사말을 남깁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눔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편지도 서로 교환하여 읽으라고 당부합니다.

(골 4:15)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눔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골 4:16)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눔바는 라오디게아에 살았던 여신도로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개방한 헌신적인 인물입니다.

초대 교회는 로마의 박해로 가정에서 은밀하게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눔바는 자신을 집을 집회 장소로 내놓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서로 교환하여 읽으라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편지 내용이 두 교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아킵보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합니다.

'직분'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코니안'은 '설교 사역'을 의미합니다.

아킵보가 예바브라와 함께 교회 사역자로 봉사하였음을 시사합니다.

(골 4:17) 아킵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치며 이 편지가 자신이 쓴 것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주로 대필을 시켰는데 그것은 당시 흔한 관습이었습니다.  
이에 편지 말미를 친필로 마무리함으로써 이 편지가 자신이 써서 보낸 것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골 4:18)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자신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고 한 것은 계속 기도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축도로 편지를 마무리 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만 또 한편으론 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해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하여 사도 바울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복음에 집중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혼자 복음 전파 사역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들이 모여 제각각 자신이 할 수 있는 분야를 충성되이 감당할 때 결국 모자이크처럼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 곧 복음을 전파 사역에 동참하고 계신지요?

어떻게 동참하고 계신지요?

동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함께 할 수도 있고, 기도로 힘을 보탤 수도 있고, 물질로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방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 더 나은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있어 이 모든 것이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맡겨 주신 복음 전파 사역은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울어져 마침내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자신의 상황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맞게 동참하십시오!

그리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